

침수된 마을의 기상천외 피자 배달법



▲ 대야를 이용해 피자를 배달하고 있는 로돌프. 사진=트위터(@HoloTabasco)

위기 돌파를 위해 이색적인 방법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멕시코의 피자 가게가 화제다.

멕시코 타바스코주의 주도 비야에르모사에 있는 배달전문 피자가게 '피자JJ'는 배달을 위해 플라스틱 대야를 이용한다.

멕시코는 최근 허리케인 에타가 상륙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홍수와 침수가 발생하고 3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18만 명을 웃도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자JJ가 있는 동네도 심각한 침수가 발생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주민들이 외출을 못하게 되면서 음식 배달 주문은 오히려 늘어났다. 문제는 배달이었다. 고민 끝에 피자JJ가 낸 아이디어는 대야 배달이다. 이 가게의 종업원인 로돌포는 피자 배달을 나갈 때 플라스틱 대야를 챙겨 나간다. 목적지로 가다가 침수지역을 만나면 피자를 대야에 넣고 물에 몸을 던진다.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해 간 밧줄로 피자 박스를 묶으면 주문한 고객은 줄을 끌어 당겨 피자를 받는다.

현지 언론은 "어쩌면 세계에서 희한한, 적어도 멕시코에선 가장 독특한 배달 방식임이 분명하다."며 피자 배달 사연을 소개했다.

로돌포는 "침수된 곳에 악어가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어 약간은 겁이 날 때도 있지만 피자를 기다리고 있을 고객을 생각하면 가릴 게 없다."며 "침수 덕분에 오히려 가게가 알려지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비둘기 가격이 무려 190만 달러

비둘기 한 마리가 경매에서 무려 160만 유로(약 190만 달러)에 낙찰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 벨기에에서 열린 온라인 경매에는 생후 약 3년의 암컷 비둘기 '뉴 킴'이 등장했다. 언뜻 보면 일반 비둘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 새는 경주용이자 전서구로 사육된 비둘기로, 현지에

서는 이를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로 꼽히는 루이스 해밀턴의 이름을 본 따 '비둘기 계의 해밀턴'이라고 부른다.

벨기에 비둘기 경매 전문 사이트인 'PIPA'에 따르면 이번 경매에는 비둘기에 관심을 둔 수많은 애호가들이 참여했고, 막판 30분에는 익명의 중국 구매자 2명이 이 비둘기를 차지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무려 160만 유로, 한화로 약 21억 원을 써 낸 중국인



▲ 190만 달러에 낙찰된 비둘기. 사진=트위터(@GGClindoeil)

한 명이 '뉴 킴'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전서구는 본래 통신용으로 훈련된 비둘기를 이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발휘해 전쟁 때 군사 기밀을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통신이 발달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경주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매년 전서구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비둘기는 경매 등을 통해 고가에 거래된다.

낙찰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매업체 측은 "중국은 명나라 시대에 경주용 비둘기를 유럽으로 처음 수출한 국가"라면서 "중국의 부호들은 뛰어난 비둘기를 얻기 위해 여전히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부모 모두 잃은 4살 소년



▲ 곤잘레스 부부와 레이든의 단란했던 모습. 사진=유튜브(KXAN) 캡처

코로나19로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아빠와 엄마를 모두 잃은 4살 소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레이든 곤잘레스(4)는 오는 28일 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만 축하해줄 부모를 모두 잃었다. 사연은 지난 6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럭운전사로 일하는 아빠 아단(33)의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그도 감염됐다. 아단

은 지난 6월 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4주 후 사망했다.

레이든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엄마인 머라이어(29)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말았다. 학교 교사로 일하는 머라이어마저도 결국 지난달 5일 세상을 떠나면서 레이든은 불과 100일 사이 부모를 모두 잃고 말았다.

현재 레이든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외할머니 로지 살리나스는 "오늘 아침에도 아이는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상황을 레이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단지 엄마는 천사가 돼 우리를 보호해 주고있다고 말해줬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레이든의 5번째 생일을 위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동호회와 소방서 등에 연락해 드라이브 스루 축하파티를 계획 중"이라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세상을 떠난 딸과 사위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